

## 『삼국사기』 「열전」 제8의 입전 인물 선정과 배치

엄기영\*

### <차 례>

1. 문제 제기
2. 「열전」 제8의 입전 인물 선정
3. 「열전」 제8의 입전 인물 배치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삼국사기』 「열전」 제8의 입전 인물 선정과 그 배치가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들은 『신당서』의 「효우열전」, 「은일열전」, 「순리열전」, 「문예열전」, 「열녀열전」을 참고하여 입전되었다. 즉, 향덕과 성각은 효우, 실혜·물계자·백결선생은 은일, 검군은 순리, 김생과 솔거는 문예, 지은·설씨녀·도미처는 열녀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효녀지은전>이 <향덕전>, <성각전>과 함께 묶이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며, 백결선생과 검군이 각각 은일과 순리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학열전」에 해당하는 강수·최치원·설충을 「열전」 제6으로 별도로 편성했다는 사실은, 『삼국사기』가 『신당서』를 참고하면서도 그 체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각 범주에 따라 수록된 인물들 사이에도 나름의 배치 기준과 이유가 존재한다. 효우에서 향덕이 성각보다 앞에 배치된 것은 시대적으로 앞서기도 하지만 향덕이 이후 효행을 표창하는 전례가 되었음이 중요한 이유였다. 은일에서는 정치적 갈등의 유무, 음악의 역할, 은일의 양상과 그 사상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순서를 정하였다.

문예의 경우, 김생과 솔거는 동시대에 활동한 인물인데, 두 사람의 배치 순서는

\* 대구대학교 문화예술학부 교수

그림보다 글씨를 높이 평가했던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김생의 글씨를 놓고 벌어진 고려 사신과 송나라 관료의 대화는 고려의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열녀에 해당하는 지은·설씨녀·도미처의 배치는 여성의 일생을 결혼 전, 약혼, 결혼 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여성이 행해야 하는 규범을 고려한 것이며, 이는 편찬자의 유교적 여성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제어** 삼국사기, 열전, 신당서, 인물 선정과 배치, 유교

## 1. 문제 제기

본고는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그것은 “『삼국사기』 「열전」 제8은, 왜 다른 열전들과 달리 입전 인물들의 공통적인 선정 기준이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가?”이다. 『삼국사기』 열전은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열전」 제1~3은 <김유신전>이고, 제4에는 을지문덕 등 9명이, 제5에는 을파소 등 9명이, 제6은 강수 등 3명이, 제7은 해론 등 13명이, 제9는 창조리와 연개소문이, 제10에는 궁예와 견훤이 입전되어 있다. 이 열전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sup> 즉 「열전」 제1~3의 <김유신전>을 제외하면 나머지 열전들은 유사한 행적을 남긴 인물들을 모아 놓은 유전(類傳)이다.

그런데 「열전」 제8은 그렇지 않다. 제8에는 향덕, 성각, 실혜, 물계자, 백결선생, 검군, 김생, 술거, 지은, 설씨녀, 도미처 등 11명이 입전되어 있

1) 정구복, 「삼국사기 해제」,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1』,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39쪽에서는 「열전」 제4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거나 영토를 넓히고, 국가나 왕실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며, 제5는 어진 재상, 충성스런 신하, 충언을 한 직신, 생명을 바친 신하이며, 제6은 문장가이고, 제7은 전쟁에서 장렬한 죽음을 바친 자를 모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9와 제10은 각각 逆臣傳과 叛臣傳이라고 하였다.

다.<sup>2)</sup> 향덕과 성각은 자신의 몸을 바쳐 효를 실천한 인물이고, 실해와 물계자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쫓겨나가거나 스스로 세상을 등졌으며, 하급 관리인 검군은 부정한 동료들과 갈등을 빚다가 독살당했다. 김생과 솔거는 각각 글씨와 그림으로 이름이 났다. 지은은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자신을 종으로 팔았으며, 설씨녀와 도미처는 각각 정혼자와 남편에 대한 의리와 절개를 지켰다. 이렇듯 「열전」 제8에 입전된 인물들의 공통점을 찾기관 사실상 불가능하다.<sup>3)</sup> 그리고 이는 『삼국사기』의 다른 열전과 구별되는 점이다.

그렇다면 「열전」 제8은 어디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인물들을 그저 한곳에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삼국사기』가 왕명을 받아 편찬된 정사임을 고려하면, 이렇듯 허술한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겠지만 『삼국사기』 편찬자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열전」 제8에 입전할 인물을 선정하고 배치하였다. 우리는 이 점을 밝힘으로써 『삼국사기』 편찬자가 「열전」 제8의 인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sup>4)</sup>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고찰하고 해명하고자 한다.

2) <金生傳>에 덧붙여진 姚克一을 포함하면 총 12명임.

3) 정구복(2011), 같은 글, 같은 곳에서는 「열전」 제8에 대해 “효행, 음악가, 화가, 서가, 정조를 지킨 기인들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서술에서 효행은 향덕, 성각, 지은이 해당할 것이고, 음악가는 백결선생을, 화가와 서가는 각각 솔거와 김생을 가리킬 것이다. 그리고 정조를 지킨 기인들은 실해, 물계자, 검군, 설씨녀, 도미와 그의 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상술하겠지만, 이러한 서술은 「열전」 제8의 인물 선정과 배치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했다고 할 수 없다.

4) 본고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로는 임윤정(2021)의 논문이 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신당서』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임윤정, 『삼국사기』 열전 권8의 층위적 분석과 영문번역,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2. 「열전」 제8의 입전 인물 선정

『삼국사기』 「열전」 제8의 인물 구성은 두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는 ‘이렇듯 서로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인물들을 왜 「열전」 제8에 함께 수록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을 왜 이런 순서로 배치했는가’이다.

『삼국사기』의 편찬자가 편찬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서를 다수 비교·검토하고 참조하였음은 선행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sup>5)</sup> 필자는 위의 두 가지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삼국사기』의 이러한 편찬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신당서』의 영향이 그러하다.

『삼국사기』의 편찬에 『신당서』가 많은 영향을 미쳤음은 <진삼국사기표>와 <신당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삼국사기표>에서는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생각하옵건대 우리 해동의 삼국은 역년이 장구하니 마땅히 그 사실이 서책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폐하께서 노신에게 편찬을 명하셨거늘 신이 스스로 헤아려보건대 부족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중략) 폐하께서 이르시길 “오늘날 학사·대부 중에 오경(五經)과 제자서(諸子書), 진한(秦漢)과 역대 왕조의 역사에 대해서는 간혹 통달하여 자세히 말하는 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도리어 아득하여 그 시말을 알지 못하니 매우 탄식할 일이다. 하물며 신라, 고구려, 백제는 나라를 열고 정립하여 예로써 중국과 교통하였기에 범엽의 한서(漢書), 송기의 당서(唐書)에 모두 열전이 실려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일은 자세히 기록하고 국외의 일은 간략히 하였기에 다 갖추어 실리지 못하였다. 또한 고기(古記)는 문자가 졸렬하고 사적도 빠지고 없어져서 군후(君后)의 선악(善惡), 신자(臣子)의 충사(忠邪), 방업(邦業)의 안위(安危), 인민(人民)의 치란(治亂)을 모두 드러내 권계로 삼을 수 없다. 마땅히 삼장(三長)을 갖춘 인재를 얻어 일가의 역사를 이루고 이를 만세에 전하여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

5) 이에 대해서는 정구복(2011), 앞의 글, 41~51쪽 참조.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sup>6)</sup>

<진삼국사기표>에 따르면, 『삼국사기』를 편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첫째, 고려의 학사·대부가 자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둘째, 중국의 사서에 삼국의 열전이 있긴 하지만 소략하다. 셋째, 고기라고 칭한 기존의 역사서는 졸렬한 문장과 사실의 누락이라는 문제가 있다. 넷째, 이런 까닭에 후대에 대한 권계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진당서표>에서는 『신당서』 편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가만히 생각건대 당이 천하를 다스린 것이 거의 삼백년이니, 군신행사(君臣行事)의 시종과 치란흥쇠(治亂興衰)의 사적(事蹟)과 전장제도의 아름다움이 마땅히 서책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구당서』는] 기차(紀次)에 정해진 법이 없고, 상략(詳略)이 적절치 않으며, 문체가 명료하지 않고, 사실도 누락되었는데, 백 오십년이 지난 후에야 가려진 부분을 드러내고, 빠져 없어진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일가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중략) 폐하께서 이르시길 “상주(商周) 이후 나라를 세움에 장구한 것은 한당(漢唐)뿐인데 불행히도 오대(五代)에 이르러 말세의 선비들은 기력이 비약(卑弱)하고 말과 뜻이 천루(淺陋)하여 그 마땅한 문장을 일으키기에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명군현신의 위대한 공렬과 혼학적란(昏虐賊亂)의 화근죄수(禍根罪首)에 있어서 그 선악을 모두 드러내어 사람들의 이목을 격동시킬 수 없었고, 진실로 후세에 권계를 드리워 오래도록 보일 만한 것이 될 수 없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sup>7)</sup>

6) 金富軾, <進三國史記表> “惟此海東三國, 歷年長久, 宜其事實, 著在方策. 乃命老臣, 俾之編集, 自顧缺爾, 不知所爲. (중략) 以謂今之學士大夫, 其於五經諸子之書, 秦漢歷代之史, 或有淹通而詳說之者, 至於吾邦之事, 却茫然不知其始末, 甚可歎也. 況惟新羅氏高句麗氏百濟氏, 開基鼎峙, 能以禮通於中國, 故范曄漢書, 宋祁唐書, 皆有列傳. 而詳內略外, 不以具載, 又其古記文字蕪拙, 事迹闕亡, 是以君后之善惡·臣子之忠邪·邦業之安危·人民之理亂, 皆不得發露以垂勸戒. 宜得三長之才, 克成一家之史, 貽之萬世, 炳若日星.”

<진당서표>가 지적하고 있는 『구당서』의 문제는, ①체제가 바르지 못하고, ②문체가 좋지 않으며, ③사실에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④후세에 권계를 드리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삼국사기』와 『신당서』는 그 편찬의 배경과 이유에 있어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sup>8)</sup> 게다가 위의 두 글은 구성과 문장의 표현에서도 서로 유사하다.

『신당서』가 편찬의 주요 사례로 참조되었음은 『삼국사기』의 사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론은 근대 이전 동아시아 역사서의 특징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편찬자의 인식과 평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삼국사기』에는 중국의 역대 사서들의 사론들이 다수 인용되어 있는데, 이중 『신당서』에서 인용한 것이 가장 많다.<sup>9)</sup>

이제부터는 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신당서』에는 권76에서 권225까지 총 150권의 열전이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열전들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인물들을 모아 놓은 유전(類傳)이다. 이중 맨 마지막에 편성되어 있는 두 권의 열전은 「반신열전」과 「역신열전」인데, 이렇듯 반신과 역신을 구별하여 편성한 것은 『신당서』와 『구당서』의 차이를 드러내는 중요

7) 曾公亮, <進唐書表> “竊惟唐有天下, 幾三百年. 其君臣行事之始終, 所以治亂興衰之跡, 與其典章制度之美, 宜其粲然著在簡冊. 而紀次無法, 詳略失中, 文采不明, 事實零落. 蓋百有五十年, 然後得以發揮幽昧, 補緝闕亡, 黜正僞謬, 克備一家之史. (중략) 以謂商周以來, 爲國長久, 惟漢與唐, 不幸接乎五代, 衰世之士, 氣力卑弱, 言淺意陋, 不足以起其文. 而使明君賢臣萬功偉烈, 與夫昏虐賊亂禍根罪首, 皆不足暴其善惡, 以動人耳目. 誠不可以垂勸戒·示久遠, 甚可歎也.”

8) <진삼국사기표>와 <진당서표>에 대한 비교·분석은 이강래, 「삼국사기의 성격」, 『정신문화연구』 통권8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25~42쪽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며, 본고의 서술도 이를 참조하였다.

9) 『삼국사기』에 인용된 史論에 대해서는 이강래, 「제4장 史論 제1절 三國史記 史論의 基礎的 檢討」,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1996, 326~341쪽 참조.

한 특징이다. 이에 대해 청나라 학자 조익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구당서』에는 「반신전」과 「역신전」이 없다. 다만 안록산 부자, 사사명 부자 및 고상, 손효철, 주차, 황소, 진종권 등은 마지막 권에 나열하여 구별됨을 조금 보였다. (중략) 『신당서』는 반신과 역신 두 항목을 나누어 이회열, 안록산 부자, 사조의 부자 및 주차, 황소, 진종권, 동창[원주: 『구당서』에는 「동창전」이 없고 『신당서』에서는 증입하였다] 등 함부로 연호를 정하고 황제를 칭한 자들은 「역신전」에 넣었고, 그 도적의 무리는 곧 그 열전 뒤에 붙였다. 복고회는, 주지광, 양승의, 이회광 등 나라를 저버리고 전횡한 자는 「반신전」에 넣었다. 분류함에 특별히 차등이 있는 것이다.<sup>10)</sup>

반신과 역신을 구별하여 열전을 편성한 것은 『삼국사기』도 마찬가지이다. 『삼국사기』 열전의 마지막 두 권인 「열전」 제9와 제10에는 각각 창조리와 연개소문, 궁예와 견훤이 입전되어 있다. 창조리는 봉상왕을 폐위시킨 후 미천왕을 옹립하였고, 연개소문은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웠다. 궁예와 견훤은 신라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 각각 후고구려와 후백제를 세웠다. 조익의 표현을 빌리면, 창조리와 연개소문은 “나라를 저버리고 스스로 전횡한 자”이고, 궁예와 견훤은 “멋대로 황제를 칭한 자”에 해당한다. 「반신열전」, 「역신열전」이라고 열전의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으나 『삼국사기』는 창조리와 연개소문, 궁예와 견훤을 각각 「열전」 제9와 제10으로 편성하여 명확하게 구별한 것이다. 이는 『삼국사기』 「열전」이 그 체제에 있어서 『신당서』 「열전」을 참조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삼국사기』 「열전」 제8에 대해 살펴보자. 본고

10) 趙翼, 『二十二史劄記』 卷16 <新書改編各傳> “舊書無叛臣·逆臣傳, 但以安祿山父子·史思明父子及高尚·孫孝哲·朱泚·黃巢·秦宗權, 列在末卷, 稍示區別. (중략) 新書則分叛逆二項, 以李希烈·安祿山父子·史朝義父子及朱泚·黃巢·秦宗權·董昌等[舊書無昌傳, 新書增入], 僭號稱尊者, 入逆臣傳, 而賊黨即附其傳後. 以僕固懷恩·周智光·梁崇義·李懷光等, 背國自擅者, 入叛臣傳. 分類殊有差等.”

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신당서』 「열전」 제120~130인데, 이들은 각각 효우(열전 제120), 은일(열전 제121), 순리(열전 제122), 유학(열전 제123~125), 문예(열전 제126~128), 방기(열전 제129), 열녀(열전 제130)이다. 앞서 서술했듯이, 『삼국사기』 「열전」 제8에는 향덕, 성각, 실혜, 물계자, 백결선생, 검군, 김생, 술거, 지은, 설씨녀, 도미처 등 11명의 인물이 ‘차례대로’ 입전되어 있다. 『신당서』 「열전」의 체제를 참고하여 이들을 분류해 보면, 향덕과 성각은 효우에 해당하고, 실혜·물계자·백결선생은 은일에 해당한다. 검군은 순리로, 김생과 술거는 문예로,<sup>11)</sup> 그리고 지은·설씨녀·도미처는 열녀로 분류된다.

이상 서술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당서 열전			삼국사기 열전 제8	비고
권195	열전 제120	효우	향덕, 성각	
권196	열전 제121	은일	실혜, 물계자, 백결선생	
권197	열전 제122	순리	검군	
권198~200	열전 제123~125	유학		삼국사기 열전 제6에 강수·최치원·설총이 입전되어 있음.
권201~203	열전 제126~128	문예	김생, 술거	
권204	열전 제129	방기		삼국사기 열전에는 방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없음.
권205	열전 제130	열녀	효녀지은, 설씨녀, 도미처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삼국사기』 「열전」 제8은 어디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인물들을 그저 모아 놓은 것이 아니다. 『삼국사기』 편찬자는 「열전」 제8을 편성하면서 『신당서』 열전의 체제를 참조하여 11명의

11) 김생과 술거를 文藝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인물을 선정하였고, 그 배치의 순서도 정한 것이다. 이로써 앞에서 제기한 두 가지 의문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첫째, 효행을 이유로 입전된 <효녀지은전>이 <향덕전>, <성각전>과 함께 묶이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된다. 지은이 입전된 이유는 분명 그 효행 때문이지만 『삼국사기』 편찬자는 <효녀지은전>을 배치할 때 효행보다는 입전 대상이 여자라는 점을 중시하였고, 이로써 지은은 향덕, 성각이 아닌 설씨녀, 도미처와 함께 묶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삼국유사』에서 향덕과 지은에 관한 일을 「효선」에 함께 수록한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기도 하다.<sup>12)</sup>

둘째, 『삼국사기』 편찬자가 백결선생을 어떤 인물로 인식했는지를 보여 준다.

『삼국사기』 「악지」에서는 “대악은 자비왕 때 백결선생이 지은 것이다.”라고 하였고, 애장왕 8년(807)에 대금무를 연주하였는데, 무척은 붉은 옷을 입고, 금척은 푸른 옷을 입었다고 하였다.<sup>13)</sup> 두 기록 중 전자는 백결선생이 자비왕(재위: 458~479) 때 활동한 인물임을 알려주고, 후자는 대악이 신라에서 널리 향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300년이 훨씬 지난 후의 국가적인 행사에서도 춤과 더불어 연주되었음을 보여준다. 만약 이러한 사실에 초점을 두었다면 백결선생을 악인(樂人) 혹은 예인으로 간주했을 것이고, <백결선생전>은 <실혜전>, <물계자전>이 아닌 <김생전>, <술거전>과 함께 묶어서 배치했을 것이다. 하지만 『삼국사기』 편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영계기를 흠모하여 세상의 부귀에 연연하지 않았음에 주목하였

12) 『三國遺事』 「孝善 第九」에는 향덕과 지은에 관한 일이 각각 <向得舍割股供親景德王代>, <貧女養母>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3) 『三國史記』 卷第32 「樂志」 第1 “確樂, 慈悲王時, 百結先生作也”; “哀莊王八年, 奏樂. 始奏思內琴, 舞尺四人青衣, 琴尺一人赤衣, 歌尺五人彩衣·繡扇並金鏤帶. 次奏確琴舞, 舞尺赤衣, 琴尺青衣.”

고,<sup>14)</sup> 이로써 실체, 물계자와 더불어 그의 행적을 은일로 평가한 것이다.<sup>15)</sup>

셋째, 검군이란 인물을 순리(循吏)로 평가하고 입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검군이 동료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동료들은 그를 회유하려다 실패하였고 급기야 독살하기에 이른다. 검군은 자신이 독살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고발하지 않았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을 벌을 받게 하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sup>16)</sup> 검군이 인정상 차마 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동료들의 부정이 거듭된 흉년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7)</sup> 그리고 인정을 강조하는 검군의 이런 태도는 처벌을 받게 된 백성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 적용을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하는 혹리(酷吏)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물론 『삼국사기』 편찬자는 “죽어야 할 바가 아닌데 죽었으니 태산을 흉모보다 가벼이 여긴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하여 죽음을 택한 그의 태도를 비판하였다.<sup>18)</sup> 하지만 「열전」 제8에서의 <검군전>의 배치는 검군이란 인물 자체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평가는 『삼국사기』 편찬자의 순리와 혹리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넷째, <도미전>이 그 제목은 남편 도미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입전 인물은 도미처임을 <도미전>의 배치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14) 『三國史記』 卷第48 「列傳」 第8 <百結先生傳> “嘗慕榮啓期之爲人，以琴自隨，凡喜怒哀歡不平之事，皆以琴宣之。(중략) 夫死生有命，富貴在天，其來也不可拒，其往也不可追。”

이후 『삼국사기』 「열전」 제8에 수록된 전을 인용할 때는 작품명만을 표기함.

15) 이렇게 볼 때, 현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삼국사기>에서 백결선생을 김생, 솔거와 함께 “기에”라고 서술한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16) <劔君傳> “畏己死，使衆人入罪，情所不忍也。”

17) <劔君傳>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거듭된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들이 자식들을 팔아먹을 지경이었으며, 궁중의 사인들이 곡식을 훔친 것도 이 때문임을 서술하였다. <검군전>에 대해서는 줄고, 『三國史記』 「劔君傳」의 인물 형상과 입전 의도, 『어문논집』 제65집, 민족어문학회, 2012, 165~189쪽 참조.

18) <劔君傳> “君子曰，劔君死非其所，可謂輕泰山於鴻毛者也。”

다섯째, 『삼국사기』의 편찬에 있어 『신당서』가 주요한 참고 사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당서』의 체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신당서』의 「유학열전」에 해당하는 인물인 강수, 최치원, 설총은 「열전」 제6에 별도로 입전되어 있다. 만약 『신당서』의 체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들 3인의 전은 <검군전> 과 <김생전> 사이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열전」 제6의 존재는 『삼국사기』 편찬자가 그만큼 유학과 유학자를 중시했음을 보여준다(물론 「열전」 제6을 별도로 편성한 데에는 분량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삼국사기』의 체재에 대해 중국의 정사체를 답습·모방했다는 비판은 피상적이며, 편찬 과정에서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고 여러 역사서를 검토한 결과라고 그 의의를 평가한 바 있다.<sup>19)</sup> 「열전」 제6과 제8은 『삼국사기』의 체재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셈이다.

### 3. 「열전」 제8의 입전 인물 배치

제2장에서 밝혔듯이, 「열전」 제8에 입전된 11명의 인물들은 『신당서』를 기준으로 하면 효우, 은일, 순리, 문예, 열녀 등 다섯 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이중 순리에 해당하는 검군을 제외하면 각 범주에는 2명 이상이 입전되어 있는데 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배치되었을까? 막연히 시대순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제3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 본다.

19) 정구복(2011), 앞의 글, 40~41쪽.

## 1) 효우 - 향덕, 성각

일단 사실부터 말하면, 두 사람이 시대순으로 배치된 것은 맞다. 향덕이 자기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부모를 구한 것은 천보 14년(755) 큰 흉년이 들었을 때이며,<sup>20)</sup> 이는 경덕왕 재위기(742~765)에 해당한다. 각간 경신, 이찬 주원 등이 성각의 효행을 왕에게 아뢰었다고 하였으므로<sup>21)</sup> 성각은 선덕왕(재위: 780~785) 때의 인물이다. 그런데 단순히 향덕이 성각보다 앞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앞에 배치한 것만은 아니다. <향덕전>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향덕은 응천주 판적향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선이고, 자는 반길인데, 타고난 성품이 따뜻하고 착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의 행실을 받들었다. 어머니는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향덕 또한 효순으로 당시에 일컬음을 받았다.<sup>22)</sup>

<향덕전>에는 향덕의 출신지뿐만 아니라 부친의 이름과 자까지 나와 있다. 향덕과 그의 집안은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선량하고 효순한 것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향덕전>에서 주목할 것은, 그의 효행이 알려지고 이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향사에서는 이 일을 주에 보고하고, 주에서는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하교 하여 조 300곡과 집 한 채, 구분전 약간을 내려주고, 유사에게 명하여 비석을 세워 사실을 기록하고 이로써 그 효행을 드러내게 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그곳을 효가리라고 부른다.<sup>23)</sup>

20) <向德傳> “天寶十四年乙未，年荒民饑，加之以疫癘。父母飢且病，母又發癰，皆濱於死。”

21) <聖覺傳> “大臣角干敬信·伊滄周元等聞之。”

22) <向德傳> “向德，熊川州板積鄉人也。父名善，字潘吉，天資溫良，鄉里推其行。母則失其名。向德亦以孝順，爲時所稱。”

향덕의 효행은 향사에서 주의 도독을 거쳐 왕에게 보고되었다.<sup>24)</sup> 신라의 행정 체계에 따라 보고가 이루어졌고, 보고를 받은 왕은 효행에 합당한 상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의 의미가 단순히 향덕 개인의 차원에 그치지 않았음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경덕왕 14년(755) “마을에 정문을 세우게 하여 표창하였다”<sup>25)</sup>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일이라는 점에서 향덕의 효는 왕의 덕화가 신라 전역에 걸쳐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며, 게다가 이곳이 옛 백제의 서울이었던 웅천주라는 사실은 신라 왕실의 통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도 여겨졌을 것이다.

향덕의 사례가 가진 이러한 의미는 성각의 경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각전>에서는 각각 경신과 이찬 주원이 성각의 일을 왕에게 아뢰었다고 하였다. 경신과 주원은 김지정(金志貞)의 난을 진압하고 선덕왕이 즉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선덕왕 사후에는 유력한 왕위 계승자로서 경쟁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실권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이런 두 사람일 한 목소리로 성각의 일을 아뢰고, 왕이 상을 내리도록 한 데에는 바로 ‘향덕이라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었다.<sup>26)</sup>

효녀 지은의 사례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은의 효행은 길가는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며, 효종량은 그 부모에게 청하여 지은에게 곡식과 옷가지를 주었고, 효종량의 낭도들도 여기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이 사실을

23) <向德傳> “鄉司報之州，州報於王。王下教，賜租三百斛·宅一區·口分田若干，命有司立石紀事以標之。至今人號其地云孝家里。”

24) 이 기록을 통하여 鄉→州→王의 보고 계통을 알 수 있으며, 주의 장관인 도독은 일반 행정업무와 관련된 중앙의 명령을 관내의 수령에게 전달하고, 또 이들에게서 보고된 내용을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문기, 「統一新羅의 地方官制 研究」, 『국사관논총』 20, 국사편찬위원회, 1990, 29쪽 참조.

25) 『三國史記』 卷第9 「新羅本紀」 第9 景德王 “十四年，春，穀貴民饑。熊川州 向德，貧無以爲養，割股肉，飼其父。王聞，賜賚頗厚，仍使旌表門閭。”

26) <聖覺傳> “國王以熊川州向德故事，賞近縣租三百石。”

들은 왕은 곡식과 집을 내리고 그 마을을 효양방이라고 하였다. 향덕의 경우와 동일한 패턴을 보여준 것이다. 게다가 이 일을 당나라 황제에게까지 표를 올려 알렸다고 하였으니,<sup>27)</sup> 효행의 표창을 통해 왕의 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요컨대 향덕의 사례는 지극한 효행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마침내 그 일이 왕에게까지 전해져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 은일 - 실혜, 물계자, 백결선생

「열전」 제8에서, 실혜는 진평왕(재위: 579~632) 대의 사람이고, 물계자는 나혜이사금(재위: 196~230) 대의 사람이라고 하였으나 백결선생에 대해서는 그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sup>28)</sup> 그런데 「악지」에 백결선생이 자비왕 재위기(458~479년)에 대약을 지었다고 하였으므로 그 활동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을 시대순으로 배치했다면 물계자, 백결선생, 실혜 순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열전」 제8에는 가장 늦은 시기의 인물인 실혜가 맨 앞에 나오고, 중간에는 가장 이른 시기의 인물인 물계자가 나오며, 맨 끝에는 가운데 시기에 해당하는 백결선생이 나온다.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 활동 시기가 아니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까?<sup>29)</sup>

실혜는 참소를 받아 죽령 밖으로 좌천되었다. 물계자는 전장에서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손의 미움을 받아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27) <孝女知恩傳> “大王聞之，亦賜租五百石·家一區，復除徭役。以粟多，恐有剽竊者，命所司差兵番守。標榜其里曰，‘孝養坊’仍奉表，歸美於唐室。”

28) <實兮傳> “眞平王時爲上舍人”；<勿稽子傳> “勿稽子，奈解尼師今時人也”；<百結先生傳> “百結先生，不知何許人。”

29) 참고로 『신당서』 「은일열전」의 경우, 대개 입전 인물의 활동 시기에 재위한 황제를 기준으로 배치하였다. 즉 시대순으로 인물을 배치한 것이다.

이후에도 전공을 인정받지 못하자 결국 세상을 떠나 은거했다고 한다. 실희와 물계자는 일종의 정치적 갈등을 겪은 것이다. 반면 백결선생의 경우, 세상과의 직접적인 불화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만약 정치적 불화나 갈등을 겪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3인은 ‘실희, 물계자 / 백결선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실희와 물계자의 배치 순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실희를 물계자보다 앞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해명되지 못한 것이다. 다른 기준이나 이유는 없을까?

3인의 전을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행적에 있어서 음악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실희는 좌천되면서 아무 말 없이 장가(長歌)를 지어 자신을 뜻을 드러냈다고 하였고, 물계자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거문고를 들고서 산으로 들어갔다고 하였으며, 백결선생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거문고로 표현했다고 하였다.<sup>30)</sup> 이들을 입전한 이유는 은일이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은일을 음악으로써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물계자와 백결선생에게 있어서 거문고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바, 여기에 주목하면 ‘실희 / 물계자, 백결선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은일의 양상이다. 비록 3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은일의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희와 물계자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은일을 택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대응에는 차이가 있다. 실희는 참소를 받았음에도 시비를 다투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굴원과 이사를 언급하며 예로부터 아첨하는 신하가 임금을 미혹케 하고 충성스러운 선비가 배척을 당했다고 말하지만,<sup>31)</sup> 진평왕이 잘못을

30) <實分傳> “遂不言而往，作長歌見意。”；<勿稽子傳> “遂被髮携琴，入師巖山，不反。”；<百結先生傳> “嘗慕榮啓期之爲人，以琴自隨，凡喜怒哀歡不平之事，皆以琴宣之。”

깨닫는다면 실혜는 임금이 있는 서울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sup>32)</sup> 반면 물계자는 세상과 완전히 절연하고 산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백결선생은 실혜와 다르고, 물계자와도 다르다. 실혜는 경주를 떠났고, 물계자는 속세를 등졌다. 이에 반해 백결선생의 은일에는 공간의 이동이 필요치 않다. 그가 경주 낭산 아래에 살았고, 사람들이 그를 동리백결선생이라고 불렀으며, 이웃에서 곡식을 찢는 소리가 들렸다는 기록으로 보아<sup>33)</sup> 그는 일반 백성과 어울려 살았다. 그의 은일은 시은(市隱)이라고 일컬을 만하다. 이렇듯 은일의 양상에 주목한다면 이들은 ‘실혜 / 물계자 / 백결선생’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들 3인의 배치는 이들의 삶이 어떤 사상적 배경에서 이해되고 있었는지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실혜와 물계자의 은일에는 왕을 둘러싼 신하들 간의 갈등과 불화라는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출처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유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혜는 임금을 미혹하는 영신(佞臣)과 직언하다 배척당한 충사(忠士)를 대조하면서 끝까지 신하로서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실혜는 시종일관 유가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그의 은일은 유가적이다. 변방의 관리이지만 실혜는

31) <實兮傳> “昔屈原孤直，爲楚擯黜，李斯盡忠，爲秦極刑。故知佞臣惑主，忠士被斥，古亦然也，何足悲乎。”

32) 실제로 진평왕이 신하의 충언에 따라 잘못을 깨달았다는 일화가 『삼국사기』 「열전」 제5 <金后稷傳>에 실려 있는데, 다음과 같다. 진평왕이 매일 狂夫, 獵士와 어울리며 사냥을 즐기자 김후직이 그만둘 것을 간언하였으나 왕은 끝내 듣지 않았다. 김후직은 죽으면서 왕이 사냥 다니는 길가에 자신을 묻으라고 유언을 남겼고,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가려는데 그의 무덤에서 ‘가지 마십시오’라는 목소리가 무덤에서 들렸다. 이에 왕은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사냥을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33) <百結先生傳> “居狼山下，家極貧。衣百結，若懸鶉。時人號爲東里百結先生。(중략) 歲將暮，鄰里春粟。其妻聞杵聲曰，人皆有粟春之，我獨無焉，何以卒歲。”

여전히 관직을 유지하고 있는바, 그의 은일은 일종의 조은(朝隱)에 해당한다.

물계자는 처음 공훈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는 공을 자랑하며 이름을 구하는 것은 지사(志士)로서 할 바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일을 기약하겠다고 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실패와 유사하며, 유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다음에도 인정받지 못하자 그는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나오겠느냐며 마침내 은일을 택한다. 더 이상 후일을 기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물계자는 실패와 다르다. 임금을 도와 뜻을 펼 수 있으면 세상에 나오고 [出], 그럴 수 없으면 물러나[退] 자신을 수양한다는 유가적 태도와 구별되는 것이다. 물계자가 산으로 들어가며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것은 이제 더는 속세의 규범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는바, 그의 은일은 도가적이다.

백결선생의 은일은 그가 흠모했다는 영계기를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열자』 「천서편」에는 영계기와 공자의 대화가 실려 있다. 공자는 사슴 갓옷을 입고 새끼로 띠를 대고서 거문고를 타며 노래하는 영계기를 보고는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는다. 이에 영계기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 남자로 태어난 것, 나이 90이 되도록 장수한 것, 이 세 가지 때문이라고 답하면서 “가난이란 선비로서 늘 그러한 것이고 죽음이란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당연한 처지에 있으면서 마지막을 맞게 되었으니,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라고 말한다.<sup>34)</sup>

영계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함으로써 즐거움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백결선생의 삶에 대한 태도와 상통한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34) 『列子』 第一 「天瑞篇」 “孔子遊於太山，見榮啓期行乎郕之野，鹿裘帶索，鼓琴而歌。孔子問曰，‘先生所以樂，何也？’對曰，‘吾樂甚多。天生萬物，唯人爲貴，而吾得爲人，是一樂也。男女之別，男尊女卑，故以男爲貴，吾既得爲男矣，是二樂也。人生有不見日月·不免繼祿者，吾既已行年九十矣，是三樂也。貧者士之常也，死者人之終也，處常得終，當何憂哉？’孔子曰，‘善乎！能自寬者也。’”

『열자』는 『노자』, 『장자』와 더불어 도가의 사상을 대표하는 책이다. 세속적인 규범이나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백결선생의 삶은 도가적이며, 그의 은일도 그러하다.

3인의 삶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실패와 백결선생은 각각 유가적, 도가적 삶을 시종일관 견지하였으며, 물계자는 유가적 삶에서 도가적 삶으로 바뀌었다.

‘실패, 물계자, 백결선생’이라는 배치 순서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인 셈이며, 이상 분석한 내용은 아래의 표로 요약할 수 있다.

정치적 갈등의 유무	입전 인물		
	실패	물계자	백결선생
음악·거문고	실패	물계자	백결선생
은일의 양상	실패	물계자	백결선생
삶의 태도	유가적	유가적→도가적	도가적

### 3) 문예 - 김생, 솔거

앞서 밝힌 대로 「열전」 제8에 김생과 솔거의 전을 배치한 것은 『신당서』 「문예열전」의 편차를 참조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에 대해 김생과 솔거를 ‘문예’의 범주에 넣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신당서』 「문예열전」에 입전된 인물들은 문인이며, 문예는 ‘문과 예’가 아닌 ‘문이라는 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신당서』 「문예열전」에 입전된 인물의 대부분이 문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문예열전」에는 그림이나 글씨에 뛰어났던 인물들도 있다. 여향, 장욱, 왕유, 정건 등이 그 예이다.

여향은 초서와 예서에 능하였고 특히 그의 글씨는 “연금서(連錦書)”라고 불릴 만큼 일가를 이루었다. 왕유는 초서와 예서에 능했을 뿐 아니라

그림으로도 유명하여 입신의 경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건은 시서화에 능하여 황제가 “정건삼절(鄭虔三絶)”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sup>35)</sup> 이들 3인은 모두 문인으로서 글씨와 그림에 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욱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다음은 <장욱전>의 전문이다.

장욱은 소주 오 지역 사람이다. 술을 좋아하여 마실 때마다 대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내달렸다. 그러고는 붓을 들었는데 간혹 머리카락을 먹에 담가 그것으로 글씨를 쓰기도 했다. 술에서 깬 후 자신이 쓴 글씨를 보고는 신들린 것 같아 다시 이렇게 쓸 수는 없겠다고 하였다. 세상에서 그를 “장건(張顛)”이라고 불렀다.

앞서 장욱은 상숙위 벼슬을 하였는데, 한 노인이 쟁송하여 판결을 구하였다. 그러더니 얼마 후 다시 찾아왔는데, 이를 번거롭게 여긴 장욱이 노하여 질책하자 노인은 “공의 글씨를 보니 기묘하여 집에 소장하고 싶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장욱이 소장하고 있는 글씨가 어떤 것이냐고 묻자, 노인은 그 부친의 글씨를 모두 가지고 왔다. 장욱이 보니 모두 천하의 빼어난 글씨였다. 이로부터 장욱의 글씨는 그 기묘함을 얻게 되었다.

장욱은 스스로 말하기를 처음에 공주와 짐꾼이 길을 다투는 것을 보고, 복소리와 피리소리를 들은 후 필법의 의미를 얻었으며, 창우 공손대남이 검기무를 추는 것을 보고 그 신묘함을 얻었다고 하였다. 후세의 사람들이 글씨를 논할 때 구양순·우세남·저수량·육간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었으나 장욱에 대해서는 비판하거나 단점을 논하는 것이 없었다. 장욱의 서법을 이은 것은 오직 최막과 안진경이라고 한다.<sup>36)</sup>

35) 『新唐書』卷202 「列傳」第127 <呂向傳> “呂向，字子回，亡其世貴，或曰涇州人。少孤，托外祖母，隱陸渾山。工草隸，能一筆環寫百字，若縈發然，世號連錦書。”；<王維傳> “維工草隸，善畫，名盛於開元·天寶間，豪英貴人虛左以迎，甯·薛諸王待若師友。畫思入神，至山水準遠，雲勢石色，繪工以爲天機所到，學者不及也。”；<鄭虔傳> “虔善圖山水，好書，常苦無紙，於是慈恩寺貯柿葉數屋，遂逐日取葉肆書，歲久殆遍。嘗自寫其詩並畫以獻，帝大署其尾曰，鄭虔三絶。”

<장욱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서예가로서의 장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대취하면 미친 듯이 내달리다가 머리카락에 먹을 묻혀 글씨를 썼다는 일화는 예술가로서의 장욱을 약여히 보여준다. 『신당서』 「문예열전」에서 문인이 아닌 서화가로서의 면모에만 초점을 맞춘 전은 <장욱전>이 유일하지만, 장욱을 포함하여 여향, 왕유, 정건의 경우는 「문예열전」의 ‘문예’가 ‘문과 예’라는 의미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삼국사기』 「열전」 제8에 김생과 술거의 전을 수록한 것은 『신당서』 「문예열전」을 참조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제 남은 것은 김생과 술거의 배치 순서이다. <김생전>에서 김생이 경운 2년에 태어났다고 하였는데,<sup>37)</sup> 이때는 신라 성덕왕 10년(711)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가 여든이 넘어서도 붓을 잡고 쉬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sup>38)</sup> 적어도 원성왕 7년(791)까지 생존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생년을 고려할 때 그의 전성기는 8세기 중엽부터일 것이다.

술거의 경우 생몰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나 그가 황룡사 벽에 노송을 그렸고, 분황사의 관음보살과 단속사의 유마상을 그렸다고 하였으므로<sup>39)</sup> 이를 통해 대략적인 활동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 진흥왕 27년(566)에 황룡사 공사가 끝났고, 선덕왕 3년(634)에 분황사가 완성되었으며, 경덕왕 22년(763)에 대나마 이순이 단속사를 세우고 그곳에

36) 『新唐書』 卷202 「列傳」 第127 <張旭傳> “張旭，蘇州吳人。嗜酒，每大醉，呼叫狂走，乃下筆，或以頭濡墨而書，既醒自視，以爲神不可復得也。世呼張顛。初仕爲常熟尉，有老人陳牒求判，宿昔又來，旭怒其煩，責之。老人曰：‘觀公筆奇妙，欲以藏家爾。’旭因問所藏，盡出其父書，旭視之，天下奇筆也，自是盡其法。旭自言，始見公主擔夫爭道，又聞鼓吹，而得筆法意，觀倡公孫舞劍器，得其神。後人論書，歐·虞·褚·陸，皆有異論，至旭，無非短者。傳其法，惟崔邈·顏真卿云。

37) <金生傳> “生於景雲二年。”

38) <金生傳> “自幼能書，平生不攻他藝，季踰八十，猶操筆不休。”

39) <率居傳> “生而善畫，嘗於皇龍寺壁畫老松。(중략) 又慶州芬皇寺觀音菩薩·晉州斷俗寺維摩像，皆其筆蹟。世傳爲神畫。”

살았다고 하였다.<sup>40)</sup> 이렇듯 세 절의 창건 시기를 고려해 볼 때 술거의 주된 활동 시기는 8세기 중엽보다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sup>41)</sup>

이상의 상황으로 보아 김생과 술거의 생몰년이나 그 활동 시기의 선후를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두 사람의 활동 시기는 겹친다고 보는 것이 실상에 맞을 것이다. 그리고 『삼국사기』 편찬자가 김생과 술거의 생년이나 활동 시기를 감안하여 그 배치 순서를 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김생과 술거의 배치 순서는, ‘서화’라는 용어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림보다 글씨를 높이 평가했던 문화적 관습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글씨는 지식인의 필수적인 교양으로 여겨졌고 수양의 의미도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김생의 글씨는 고려가 중국 못지않은 문화적 수준에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다음은 <김생전>의 마지막 부분이다.

지금도 때때로 그 진적이 있으면 학자들이 전하여 그것을 보배로 여긴다. 승녕 연간에 학사 홍관이 진봉사를 따라 송나라에 들어가 변경에 묵었다. 당시 한림대조 양구와 이혁이 황제의 칙명을 받들고 [고려 사신의] 숙소에 와서 그림 죽자에 글씨를 썼다. 홍관이 김생이 행서와 초서를 쓴 두루마리 한 권을 그들에게 보여주자, 두 사람이 크게 놀라면서 “오늘 왕우군의 친필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홍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라사람 김생이 쓴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웃으면서 “천하에 왕우군을 제외하고 어

40)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4 眞興王 27年 “皇龍寺畢功.”; 「新羅本紀」 第5 善德王 3年 “芬皇寺成.”; 「新羅本紀」 第9 景德王 22年 “大奈麻李純爲王寵臣, 忽一旦避世入山. 累徵不就, 剃髮爲僧, 爲王創立斷俗寺, 居之.”

41) 안휘준, 「率居: 그의 身分, 活動年代, 畫風」, 『미술사학연구』 274, 한국미술사학회, 2012, 15~17쪽에서는 술거와 관련한 기록 및 그간의 연구를 검토한 후 술거의 활동 시기는 ‘석굴암과 불국사가 조영되던 ‘8세기 중엽’ 통일신라 문화의 절정기’라고 주장하였다.

찌 이처럼 신묘한 필체가 있겠소?”라고 말하며, 홍관이 여러 번 얘기했으나 끝내 믿지 않았다.<sup>42)</sup>

고려 지식인들이 김생의 글씨를 보배로 여겼으며, 김생의 글씨를 본 송나라 관료가 이를 왕희지의 친필임이 분명하다고 우겼다는 일화이다. 우선 이 일화는 김생의 글씨가 왕희지만큼 뛰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 의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외교 현장에서 있었던 고려와 송의 은근한 자존심 대결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생의 글씨를 고려 지식인들이 보배로 여겼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감식안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시 명필로 유명했던 홍관은 뛰어난 감식안을 가진 고려 지식인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sup>43)</sup> 송나라 관료는 황제의 칙령을 전하기 위해 고려 사신의 숙소에 오더니 족자에 글씨를 쓴다. 자신들의 수준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그러자 홍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생의 글씨를 내어놓는다. 김생의 글씨를 미리 준비해 간 것으로 보아 이런 식의 대결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송나라 관료는 김생의 글씨가 왕희지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사람은 김생과 왕희지의 글씨를 구별할 만한 안목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홍관이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것은 ‘중화(中華)와 사이(四夷)’라는 시각에서 세계를 인식했던 중국 지식인의 완고한 태도를 보여준

42) <金生傳> “至今往往有真蹟，學者傳寶之。崇寧中，學士洪灌隨進奉使入宋，館於汴京，時翰林待詔楊球·李革，奉帝勅至館，書圖族。洪灌以金生行草一卷，示之。二人大駭曰，‘不圖今日得見王右軍手書。’洪灌曰，‘非是，此乃新羅人金生所書也。’二人笑曰，‘天下除右軍，焉有妙筆如此哉。’洪灌屢言之，終不信。”

43) 홍관이 명필로 유명했음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高麗史』 「世家」卷第11 肅宗 7년(1102) 8월 11일에는 왕명으로 홍관이 集祥殿의 현판을 썼다고 하였으며, 『世家』卷第12 肅宗 8년(1103) 3월 10일에는 會慶殿 병풍에 無逸篇을 썼다고 하였다. 李仁老의 『破閑集』에서는 大鑑國師와 洪灌만이 고려에서 명필로 이름을 떨쳤다고 하였다.

다.

이 일화가 고려에서 큰 화제가 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지식인의 필수 교양인 서예를 두고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고려 지식인들의 높은 문화적 수준을 알린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삼국사기』 편찬자는 이 일화를 덧붙임으로써 김생의 글씨와 함께 당시 고려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다.

#### 4) 열녀 - 지은, 설씨녀, 도미처

「열전」 제8의 끝에는 여성이 등장한다. 바로 지은, 설씨녀, 도미처이다. 이들은 왜 이런 순서로 배치되었을까? 먼저 이들의 신상에 대해 살펴보자.

지은은 한기부 백성 연권의 딸이며, 진성왕(재위 887~897년) 대의 사람이다.<sup>44)</sup> 설씨녀는 울리 백성의 딸이며, 진평왕(재위 579~632년) 대의 사람이다.<sup>45)</sup> 도미처는 개루왕(재위 128~166년) 대의 사람이다.<sup>46)</sup> 그러므로 이들의 배치는 시대순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배치한 기준은 무엇일까? 지은과 설씨녀는 신라인이고, 도미처는 백제인이므로 신라인을 앞에 두고 백제인을 뒤에 둔 것일까? 그런데 이렇게 가정하더라도 왜 지은이 설씨녀보다 앞에 배치되었는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3인의 전이 열녀전(列女傳)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입전 인물이 ‘여성’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사람이 입전된 것은 이들의 덕행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은은 서른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채 홀로 모친을

44) <孝女知恩傳> “孝女知恩，韓歧部百姓連權女子也。”；『三國遺事』卷第5 第9 「孝善」 <貧女養母> “時眞聖王賜穀五百石并宅一廛，遣卒徒衛其家以儆劫掠，旌其坊爲孝養之里。”

45) <薛氏女傳> “眞平王時，其父季老，番當防秋於正谷。女以父衰病，不忍遠別。”

46) <都彌傳> “都彌，百濟人也。雖編戶小民，而頗知義理。其妻美麗，亦有節行，爲時人所稱。蓋婁王聞之，召都彌與語曰”

봉양하며 효를 다했고, 설씨녀는 군역으로 인해 6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약혼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도미치는 왕의 폭력에 맞서며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켰다.

이렇게 볼 때, 3인의 배치는 여성의 삶의 단계를 고려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의 삶을 결혼 전, 약혼, 결혼 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행해야 하는 도덕규범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여성에 대한 도덕규범으로 받아들여졌던 삼종지도(三從之道)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효녀지은전>에서는 당시 지은의 상황에 대해 “年三十二, 猶不從人”이라고 하였는바, 이런 표현은 삼종지도의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sup>47)</sup> 만약 어머니로서의 덕행을 갖춘 사례가 있었다면, 그 여성은 도미치 다음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삼국사기』 편찬자는 자신이 가진 유교 이념을 『삼국사기』의 체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3인의 배치 순서는 이러한 고민의 구체적인 결과물로서 유교적 여성 인식(삼종지도라는 규범)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sup>48)</sup>

#### 4. 맺음말

본고는 『삼국사기』 「열전」 제8은, 왜 다른 열전들과 달리 입전 인물들의 공통적인 선정 기준이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47) 반면 『삼국유사』 <貧女養母>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다. 이 또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48) 『삼국사기』 편찬에 투영된 김부식의 여성 인식에 대해서는 이혜순(1996)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이혜순, 「김부식의 여성관과 유교주의 - 『삼국사기』 여성 열전의 분석적 고찰」, 『고전문학연구』 제11집, 한국고전문학회, 1996, 3~28쪽.

『삼국사기』의 편찬에는 이전 시기에 편찬된 수많은 사서가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는데, 이중 『신당서』는 특히 중요한 편찬 사례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진삼국사기표>와 <진당서표>의 비교, 『삼국사기』에서 인용한 『신당서』의 사론, 「반신열전」과 「역신열전」의 편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 「열전」 제8의 인물들은 『신당서』 「열전」 제120~130에 편성된 「효우열전」, 「은일열전」, 「순리열전」, 「문예열전」, 「열녀열전」을 참고하여 입전되었다. 즉, 향덕과 성각은 효우, 실해·물계자·백결선생은 은일, 검군은 순리, 김생과 솔거는 문예, 지은·설씨녀·도미처는 열녀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효녀지은전>이 <향덕전>, <성각전>과 함께 묶이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며, 백결선생과 검군이 각각 은일과 순리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학열전」에 해당하는 강수, 최치원, 설총을 「열전」 제8에 수록하지 않고 「열전」 제6으로 별도로 편성했다는 사실은, 『삼국사기』가 『신당서』의 체재를 중요한 편찬 사례로 참고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각 범주에 따라 수록된 인물들 사이에도 나름의 배치 기준과 이유가 존재한다. 효우에서 향덕이 성각보다 앞에 배치된 것은 시대적으로 앞서기도 하지만 향덕이 이후 효행을 표창하는 전례가 된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은일에서는 정치적 갈등의 유무, 음악의 역할, 은일의 양상과 그 사상적 성격 등을 기준으로 인물을 배치하였으며, 그 결과 실해·물계자·백결선생 순으로 배치되었다.

문예의 경우, 문인은 없고 서예가 김생과 화가 솔거만이 입전되어 있는데, 이는 『신당서』 「문예열전」에 입전된 인물이 대부분 문인인 것과 다르다. 그러나 여향·장욱·왕유·정건의 사례는 김생과 솔거가 『신당서』 「문예열전」을 참조하여 「열전」 제8에 수록되었음을 보여준다. 김생과 솔거는 동 시대에 활동한 인물인데, 두 사람의 배치 순서는 그림보다 글씨를 높이 평

가했던 동아시아 문화권의 관습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김생의 글씨를 두고 벌어진 고려 사신과 송나라 관료의 대화는 고려의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열녀에 해당하는 지은·설씨녀·도미처의 배치는 여성의 일생을 결혼 전, 약혼, 결혼 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행해야 하는 도덕규범에 따른 것이다. 즉, 결혼 전의 지은, 약혼 단계의 설씨녀, 결혼 후의 도미처는 각각 부모에 대한 효, 약혼자에 대한 신의, 남편에 대한 정절의 사례인 셈이다. 만약 어머니로서 덕행을 갖춘 사례가 있었다면 아마도 그 여성은 도미처 다음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치는 편찬자의 유교적 여성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상 『삼국사기』 「열전」 제8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체재의 특징과 입전 인물에 대한 편찬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본고의 결과를 바탕으로 「열전」 제8의 인물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보면, 개별 인물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으나 「열전」 제8의 전체적인 체재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연구는 없었다. 이 문제는 별도의 논고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 참고문헌

- 『三國史記』 (정구복 외,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1』,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 『三國遺事』 (강인구 외, 『역주 삼국유사』, 이회문화사, 2002)
- 李仁老, 『破閑集』 (박성규 역주, 보고사, 2012)
- 『高麗史』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아세아문화사, 1990)
- (淸) 趙翼, 『二十二史劄記』 (洪氏出版社, 中華民國六十三年)
- 안휘준, 「率居 : 그의 身分, 活動年代, 畫風」, 『미술사학연구』 274, 한국미술사학회, 2012, 5~29쪽.
- 엄기영, 「『三國史記』 「劔君傳」의 인물 형상과 입전 의도」, 『어문논집』 65, 민족어문학회, 2012, 165~189쪽.
- 이강래, 「『삼국사기』 열전의 자료 계통」, 『한국고대사연구』 42, 한국고대사학회, 2006, 137~190쪽.
- 이강래, 「제4장 史論」,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1996, 305~418쪽.
- 이강래, 「삼국사기의 성격」, 『정신문화연구』 8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25~42쪽.
- 이문기, 「統一新羅의 地方官制 研究」, 『국사관논총』 20, 국사편찬위원회, 1990, 1~36쪽.
- 이혜순, 「김부식의 여성관과 유교주의 -『삼국사기』 여성 열전의 분석적 고찰」, 『고전문학연구』 11, 한국고전문학회, 1996, 3~28쪽.
- 임윤정, 「『삼국사기』 열전 권8의 층위적 분석과 영문번역」,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1~45쪽.
- 전덕재, 「『삼국사기』 신라 인물 열전의 원전과 편찬」, 『동양학』 81,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20, 37~63쪽.

## ABSTRACT

The Criteria Underlying the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Figures in *Samguksagi*, “Biographies” Book 8

Um, Ki Young

This article examines the criteria underlying the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figures in *Samguksagi*(三國史記), “Biographies”(列傳) Book 8. The compilers referred to the *XinTangshu*(新唐書) categories of “Filial and Fraternal Piety”(孝友), “Recluses”(隱逸), “Exemplary Officials”(循吏), “Literature and the Arts”(文藝), and “Exemplary Women”(列女). Thus, Hyangdeok(向德) and Seonggak(聖覺) were classified under filial and fraternal piety; Silhye(實兮), Mulgyeja(勿稽子), and Baekgyeol-seonsaeng(百結先生) under recluses; Geomgun(劔君) under exemplary officials; Kim Saeng(金生) and Solgeo(率居) under literature and the arts; and Jieun(知恩), Lady Seol(薛氏女), and Domi’s wife(都彌妻) under exemplary women.

This classification clarifies why “The Biography of the Filial Daughter Jieun” was not grouped with Hyangdeok and Seonggak, and reveals how Baekgyeol-seonsaeng and Geomgun were typologically perceived. Furthermore, the fact that figures corresponding to “Confucian Scholars”(儒學)—Kangsu(強首), Choe Chiwon(崔致遠), and Seol Chong(薛聰)—were placed separately in Book 6 demonstrates that while *Samguksagi* drew upon the *XinTangshu*, it did not adopt its structure wholesale.

Within each category, ordering followed own principles. For filial piety, Hyangdeok precedes Seonggak not only because of chronological priority but also because his conduct became a model. For recluses, the sequence of Silhye, Mulgyeja, and Baekgyeol-seonsaeng reflects political conflicts, the role of music, and differing modes and ideological orientations of recluses, rather than simple chronology. In the case of literature and the arts, Kim Saeng precedes Solgeo in accordance with the East Asian

cultural tradition that valued calligraphy above painting, as illustrated in the anecdote of a Goryeo(高麗) envoy proudly discussing Kim's calligraphy with Song(宋) officials. Finally, the placement of Jieun, Lady Seol, and Domi's wife reflects Confucian prescriptions governing women's conduct across life stages—before marriage, during betrothal, and after marriage—revealing the compilers' Confucian construction of womanhood.

**Key Words** *Samguksagi*(三國史記), Biographies(列傳), *XinTangshu*(新唐書),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Figures, Confucianism(儒教)

논문투고일: 2025.09.30.

심사완료일: 2025.11.11.

게재확정일: 2025.11.20.

